

중고차 수출시장 매력적 블루오션

군산시, 군산항 활성화 · 종사자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군산항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고차 수출 시장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 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군산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강연자는 기업형 중고차 유통회사인 (주)유카의 신현도 대표이사로 대우자

동차판매 및 동화오토앤비즈 등 신차와 중고차 유통과 마케팅 분야에서 약 40여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중고차 유통 전문서적 '실전 중고차매매업 경영과 마케팅' 저자이기도 하다.

신 대표이사는 "전세계 중고차 수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국내 중고차의 수출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블루오션"이라며,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개발사업자는 중장

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강연을 비롯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4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사업자가 1,010억을 조달해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내 6만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는 아가페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로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익산 아가페 정원, 주말 · 공휴일 방문객 '사전 예약제'

익산시는 아가페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로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황등면 읍촌리에 위치한 아가페 정원은 아름다운 수목과 초화류가 있는 정원으로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문객 급증으로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려 관람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말 · 공휴일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게 됐다.

방문 2주 전 화요일부터 금요일(09시~17시)까지 전화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일 9시 · 11시 · 13시 · 15시(1

일 4회) 중 방문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번호는 (063) 843-7294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 · 공휴일 방문객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 제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아가페 정원은 높이가 40m에 달하는 메타세쿼이아로 조성된 산책로와 이국적인 분위기로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익산시의 관광명소가. /익산=이재훈 기자

방축도, 한국관광공사 여름시즌 안심관광지 선정

출렁다리 개통... 새로운 섬여행 랜드마크 자리매김

고군산군도의 섬 방축도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2년 여름시즌 안심관광지에 선정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방축도는 고군산군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동백숲길과 해변산책로가 어우러진 걷기 좋은 섬으로 유명하다. 2021년 10월 개통된 방축도 출렁다리는 방축도 옆 무인섬인 광대도와 연결된 총 80m의 인도교로 고군산군도 여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방축도에 들어서면 출렁다리까지 데크길을 통해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며, 출렁다리 위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 비유 등 육도면 말도리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다.

방축도는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



고군산군도의 섬 방축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년 여름시즌 안심관광지에 선정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도로 연결되어 육지섬이 된 장자도 선 위치하였으며, 하루 2회 (성수기 주말 3회) 운항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원광대 학생회와 전입 홍보 캠페인 펼쳐

익산시가 관내 대학생들의 주소 전입을 독려하고 각종 전입 시책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달을 대학생 전입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캠퍼스 방문, SNS 등을 통한 다방면의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원광대 캠퍼스에서 전입 혜택 시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를 돌며 강의실, 기숙사, 교

수 연구실 등을 방문하는 대면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가장 혜택이 큰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전입을 독려했다.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익산으로 전입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첫학기 30만원, 이후 학기 10만원씩 지급해 대학생은 최대 100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

는 정책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원광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전입 혜택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위해 실제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오 권한대행은 강태순 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구호인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삼)초 동안! 4(사)고 예방!'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작은 사인을 17일 익산시 SNS에 공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참여자 교통안전 슬로건 표어 피켓과 함께한 촬영물을 SNS에 공유하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 보



호 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라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 권한대행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원장,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박귀자 센터장,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 한승호 회장을 지목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 오산역-상아마을간 도로확포장 완공

익산시가 도로확포장 공사를 통한 병목구간을 해소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다.

시가 그간 추진해 왔던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오산면 상아마을 진입 도로는 폭이 4m로 협소하고 일부 구간만 확장돼있어 병목구간이 발생했다. 이에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그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진입로 부근 110m 구간에 총 사업비 9천여 만원을 투자해 도로 폭을 8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지난해에 착공해 이달 최종 준공했다.

도로확포장공사가 준공되자 상아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개선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하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충격 완화 및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87명으로 공공근로사업 5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7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시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로 1일 6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9,100원(부대비 5,000원 별도)으로 주간 및 월간 개근 시 주휴 및 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산업단지 정비, 은파호수공원 환경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